

동남아 관광도시 사례조사로부터 배운다

고 승 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우리사회가 과거보다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관광에 대한 관심이 훨씬 크게 되었다. 일반 사람들에게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 관광을 하는 기회가 크게 부쩍 증가하였다. 심지어 학생들도 요즈음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실정이다. 그래서 관광은 하나의 산업부문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산업을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전략산업으로 삼아 제주도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21세기 제주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관광은 양(量) 중심의 대량관광 보다는 질(質) 중심의 맞춤형 관광으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 관광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관광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 관광지 사례조사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어 2007년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동남아 관광도시로 유명한 태국 방콕, 말레

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의 발리 지역에 대한 사례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과연 이들 지역은 관광객들에게 어떤 매력을 주고 있고, 동시에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제주지역의 관광 이미지 제고, 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적합한 관광지 개발 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 문화관광의 메카, 태국

태국의 영토 면적은 51만 3,119km²이고, 인구는 6,500여만명이다. 기후는 열대몬순기후로 건기(11월~2월), 우기(6월~10월), 하기(3월~5월)로 구분되어 있다. 정치체제는 1932년을 기점으로 왕정체제로부터 민주정치 구조로 전환하였지만 아직도 국왕이 국헌의 최종 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왕은 현재까지 국가 및 사회통합의 중심에 서있다.

태국은 풍부한 천연자원(예컨대, 고무, 석유, 진주 등)을 보유하고 있고, 쌀 주요생산 국가이며, 아울러 관광·휴양의 3차 서비스 산업이 아주 발전되어 있다. 특히 2차 산업 가운데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들어와 자동차 조립

및 부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으로 태국은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타이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중국계, 라오스계, 인도계, 그리고 말레이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교는 불교가 지배적이고 승려들이 국가 및 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치영역에서는 참여 비율이 여전히 낮은 편이다. 교육편제는 한국과 동일하고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진학 희망 대상 학교는 종합사관학교(육·해·공군 및 경찰 포함)이고, 입학 후 3학년 때 군(육·해·공군 사관학교) 혹은 경찰사관학교 중에서 진로를 결정한다.

태국을 방문한 2006년도 외국인 관광객수는 1,328만명으로 나타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지역이다.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 순위를 보면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관광을 오고, 다음으로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국의 주요 관광지로는 방콕, 파타야, 팻켓 등이고, 흥미롭게도 최근에는 의료 치료와 휴양을 겸비한 의료관광이 각광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장기체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관광 모습을 보여주는 Bumrungrad 병원로비와 안내데스크)

사례조사가 방콕 지역에 한정되어 태국 전체 관광지 특성들을 모두 열거할 수 없지만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특성은 뚜렷하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방콕 시내에서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의 급증으로 교통체증 및 혼잡, 소음 및 대기 오염 등으로 말미암아 관광객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태국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왕궁 및 사찰 관광지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여 관람 혼잡 및 안전에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유물 및 유적지 훼손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방콕 시내의 불교사원을 관람하는 외국인 관광객)

태국의 방콕 시내 관광지 사례 조사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들이 문화유산 및 유적에 대한 관심이 크므로 문화 관광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태국의 문화 유적지에 대한 관광 가이드는 반드시 태국인에게 허용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유산 및 유적과 관련된 관광지 가이드 및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셋째, 야시

장 개장은 물론 야간에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야간 관광 활성화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국제규모의 대형 공연장 시설에서 유럽의 공연·기획·연출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획 및 연출을 함으로써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야간 관광의 매력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바다 및 강위의 수상생활 모습들이 비록 부정적 측면(더럽고, 낡고, 오래된 건물, 오염된 물 등)들이 있지만 블랙 투어리즘(Black tourism 혹은 Dark tourism)¹⁾ 관점에서 보면 의미있고 인상적인 관광지였다.



(방콕의 수상 가옥 풍경)

다섯째, 고부가가치 체류관광의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관광이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영리병원을 설립하여 경제적으로 부유한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여 관광소득 증대 및 의료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면을 볼 수 있다. 끝으로, 외국인 관

광객을 위해 국제공항 이용 편의(출입국, 세관 업무 등)가 제공되고 있다.

■ 휴양관광으로 도약하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면적은 329,733km²로 남·북한 면적의 1.5배에 이르며, 인구는 2007년 현재 약 2,490여만명이다. 기후는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로 건기(3월~10월)와 우기(11월~2월)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태풍, 지진, 해일이 거의 없어 자연재해 피해가 많지 않다.

말레이시아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일본, 영국 순으로 거의 400년 동안 외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는데 1957년 8월 31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정치체제는 의원내각제이지만 13개 주의 왕(술탄)들이 여전히 세습 왕으로서 국가 및 사회통합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셀레옹주의 뿌뜨라자마 지역에 인구 100만 거주 계획으로 이미 건설된 신행정 도시는 인상적이었다.



(신행정수도의 정부 청사 모습)

1) 블랙 투어리즘(Black tourism) 혹은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특정 관광지역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혹은 자랑하고 싶지 않은 역사적 비극·사건, 문화적 폐허, 그리고 현재의 추한 생활모습 등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발굴하여 관광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역사, 문화, 삶의 방식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자기반성과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예컨대, 제주의 4·3 항쟁, 난징 대학살, 캄보디아 톨푹 정권의 대학살, 유대인 대학살의 징표인 홀로코스트, 히로시마 원폭투하 등과 같은 역사적 비극과 참상이 관광문화 자원으로 개발되어 각광 받고 있다. 최근에 불에 타버린 국보 1호인 송례문 관광도 일종의 블랙 투어리즘으로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도 태국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천연자원(예컨대, 석유, 고무, 야자, 주석, 금, 진주 등)을 보유하고 있고, 쌀 생산 국가이다. 특히 세계 11위 석유생산 국가이지만 양질의 석유 생산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자동차 대체 에너지 연료로 쓰이게 되는 팜류(야자) 생산은 에너지 위기 시대에 국가 경제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차 산업 가운데 자동차, 석유화학 부문이 주력 기간산업이다.

사회·문화적으로 말레이시아는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말레이계가 60%, 중국계 25%, 인도계 8%, 기타 7%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레이 주민들은 주로 정치, 행정 및 서비스직종에 종사하고, 중국계는 경제산업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3D 업종에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공식 국교는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영국의 영향을 받아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특히 연금제도가 잘 갖추어져 노후생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초중등 학교에서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 때부터 영어 교육이 강화되어 한국인 조기 유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말레이시아에는 관광지 보다는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체류형 관광이 발전되어 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관광지에 유흥문화가 덜 발달되어 있고, 말레이 주민들에겐 술·도박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중국계 주민과 외국인에게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지역(예컨대, 해발 1800m에 위치한 겐팅고원지대)에 숙박, 카지노, 놀이, 쇼핑, 컨벤션 등의 시설을 갖춘 리조트 단지

를 개설하여 지역주민 뿐 만 아니라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태국보다 많지 않으나, 말레이시아 정부 차원에서 강원도와 관광 친선교류를 맺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시내 관광에서 교통체증과 혼잡으로 관광객 이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이슬람 국가여서 유흥 문화가 발달되지 않아 먹고, 놀고, 즐기고, 마시는 관광지 개발은 덜 되어 있다. 특히 외국 관광객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관광지에서 술, 도박, 음식, 성문체 등과 관련하여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해발 1800m에 위치한 겐팅하이랜드리조트 단지)

말레이시아에는 먼저 산발적인 인위적 관광시설 보다는 관광시설의 복합단지화(예컨대, 겐팅하이랜드리조트단지)를 통해서 호텔, 카지노, 쇼핑, 게임, 회의, 놀이 등을 동시에 영유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시설들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의 단지화, 규모화, 차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광객들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 및 관광상품 개발 전략들을 마련하여 체류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말레이시아 경우처럼 야간관광의 내실화를 위해서 야외 전망탑, 야외 노천살롱, 야외 노천 카페 등과 같은 시설들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야간관광의 새로운 전략들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의 중앙 정부와 관광 친선교류 협정을 맺어 해외관광 시장 개척에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지구상의 마지막 낙원, 인도네시아 발리섬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면적은 5,561km²이고, 인구는 약 350여만명이다. 기후는 열대성 기후로 건기와 우기로 구분되고 있다.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고,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이후 인도네시아의 지방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

발리섬에는 가스/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1차 산업이 발달하여 쌀,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코코넛 등이 주요 농업 생산 품목이고 수출 농업이 발달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열대우림지역으로 목재 생산 여건이 좋아서 가구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발리는 무엇보다 관광산업이 지역의 주력 산업이다.

발리지역에도 다인종이 모여 살고 있고, 힌두교 국가이지만 불교와 이슬람교가 공존하고 있다. 힌두교 신자들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마을 및 동네 마다 힌두교 사당 및 사원 유적이 인상적이었다. 발리 주민들의 종교의식과 생활들을 관찰할 기회는 없었지만 집안에 힌두교 사당과 길거리마다 힌두교를 상징하는 석상, 그리고 불교 석상들을 보면 그들이 종교 생활을 실천하고 있음을 실감나게 한다.

발리섬에는 힌두교 사원 유적지(해상사원, 절벽사원 등) 외에는 대부분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조성된 휴양시설이 잘 갖추

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관광객들이 장기 체류(2007년도 외국인 평균체류 기간 12일) 하면서 쉬는 휴양관광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유럽 지역으로부터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한국인 관광객은 대부분 신혼부부로 허니문 관광 목적으로 발리를 방문하고 있다. 발리 지방정부가 지역 관



(발리의 해변에 위치한 휴양 해수욕장 풍경)

광정책 수립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보다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위적 관광시설을 배제하여 천혜의 바다와 해안을 활용한 휴양관광과 힌두교의 생활화로 이어지는 문화관광이 돋보인다. 그래서 발리섬 전체 지역에 골프장은 3개 있지만 더 이상 건설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바닷가에 위치한 힌두교 사원의 모습)

발리 관광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먼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국제적 관광지이기 때문에 테러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 문제가 해결과제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관광객들은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뒤섞인 교통 혼잡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발리에서 주요 휴양지가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서 시내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더구나 관공서 건물, 편의시설, 식당 등 간판 및 안내판의 모든 표기가 인도네시아 언어로 되어 있어서 외국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발리 관광지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 발리주 정부차원에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문화관광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커다란 매력을 주기 때문에 전통예술 문화 및 유산의 관광자원화 전략들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발리의 대부분 주택이나 건물들은 전통 가옥을 본받아 저층의 현대식 건물로서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게 건축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지의 자연환경, 경관 및 삶의 방식을 고려하여 주택 및 건물의 고도 및 건축 양식을 독특한 모델로 재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마지막으로, 발리는 해변 휴양지 조성 및 쇼핑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들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에서도 휴양 및 체류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나오면서

동남아 관광도시 사례조사가 짧은 기간에 태국의 방콕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시내와 인도네시아의 발리 지역을 보고, 느끼고, 들은 내용에 의존하여 글을 적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을 모두 여기서 상세히 서술하기가 쉽지 않았다.

사례조사로 방문한 대부분 동남아 관광도시들의 공통점은 문화관광의 활성화에 커다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기적 관광보다는 체류형 휴양관광이 번창하고 있고, 야간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인위적 관광시설들은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시설의 복합단지(쇼핑, 위락, 공연, 카지노 시설 등의 집단지) 조성으로 나가고 있다.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문제, 교통 혼잡 및 불편, 유물 및 유적지 훼손 등의 문제점도 노출되어 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적 관광·휴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새롭게 짜고, 의료관광, 야간관광 및 체류형 휴양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구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하는데 불편과 불안을 주지 않는 안전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 다원주의 문화 시대에 제주지역의 독특한 문화예술과 청정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문화관광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실천전략과 과제를 발굴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제주지역에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인위적 관광시설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광지 특성과 시설들의 차별화와 집적화가 요구된다.